

SAFE INCHEON

인천광역시 재난안전소식지
INCHEON DISASTER NEWSLETTER

JUNE 2024
No.03



02 포커스

시민안전과 치안
이상동기 범죄
AI 피싱
인천시 치안안전 특징

06 전문가 칼럼

안전이 매력이 되는 도시, 인천을 꿈꾸며

09 정책소식

탄력순찰
생활안전지도
인천시 대책

12 인터뷰

인천경찰청 박영준 경사

15 피싱 피해 대처요령

16 대출사기 대처요령

포커스

시민안전과 치안

시민안전과 치안

최근 문자메시지 범죄, 무차별 흥기난동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마약 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의 확산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일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안환경의 악화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후 범죄가 감소하더라도 불안감이 해소되기는커녕 언제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과거의 열악한 치안환경 때문에 굳어진 부정적 도시이미지로 인해 현재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치안 현황 및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치안활동과 홍보활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



구분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험	도덕성 부족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기타	
2022	전국	4.0	8.4	8.0	13.3	9.6	7.0	0.2
	인천	3.9	8.8	6.4	12.2	9.7	7.0	0.1
2020	전국	3.3	6.6	5.6	14.9	7.4	4.8	0.1
	인천	3.4	7.4	4.0	17.6	7.6	5.2	-
2018	전국	6.6	13.5	9.2	12.8	9.5	6.0	0.1
	인천	3.4	16.7	5.8	13.1	11.1	6.0	0.2

출처 : 통계청(2022 사회조사)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신종 질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을 제외했을 때,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이 항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2년 범죄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범죄

■ 매우 안전하지 않음 ■ 비교적 안전하지 않음 ■ 보통 ■ 비교적 안전 ■ 매우 안전



출처 : 통계청(2022 사회조사)

이상동기 범죄

흔히 ‘묻지마 범죄’ 혹은 ‘무차별 범죄’라고 부르는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행해지는 범죄행동을 지칭합니다.

피해자 무관련성

피해자가 가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동기 이상성

동기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

행위 비전형성

범행이 잔혹하고 과도해 행위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범죄

인천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 등

출처 : 박형민(2023)

AI 피싱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죄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하면서 개인 SNS 영상 조작을 통하여 얼굴 합성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는 피해자 맞춤형 범죄인 ‘AI 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와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발화에 합성하는 기술인 ‘딥보이스(Deepvoice)’가 대표적인 활용 기술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악용하여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AI 피싱이 빈번히 발생하고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SNS 이용 시 더욱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관리가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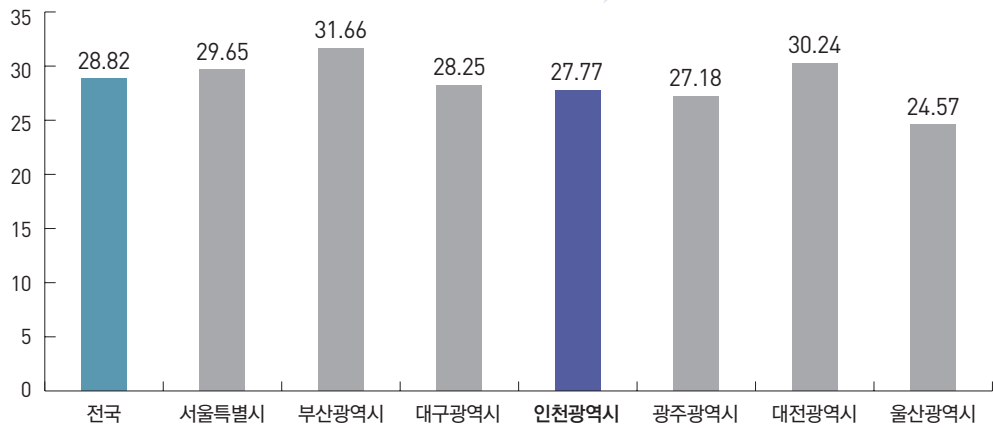


포커스

인천시 치안안전 특징

범죄 발생건수(인구 만 명당) (2022)

인천광역시의 인구 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28.82)보다 낮은 **27.77**건입니다.



출처: KOSIS

2023년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특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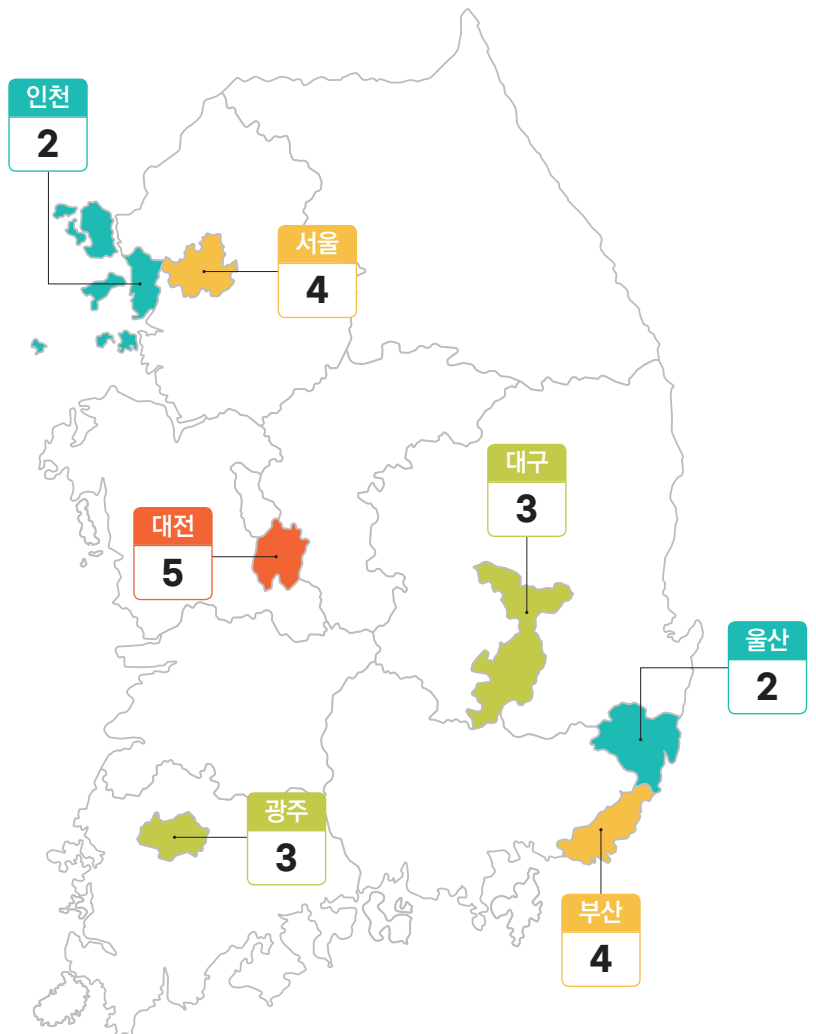
범죄 등급이 특별·광역시는 평균 3등급인데 반해, 인천광역시는 **2등급**으로 다소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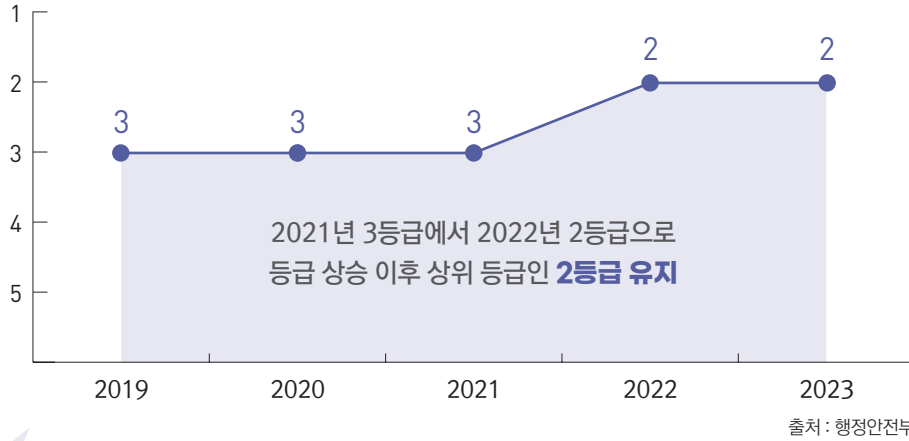
※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

특별·광역시 평균등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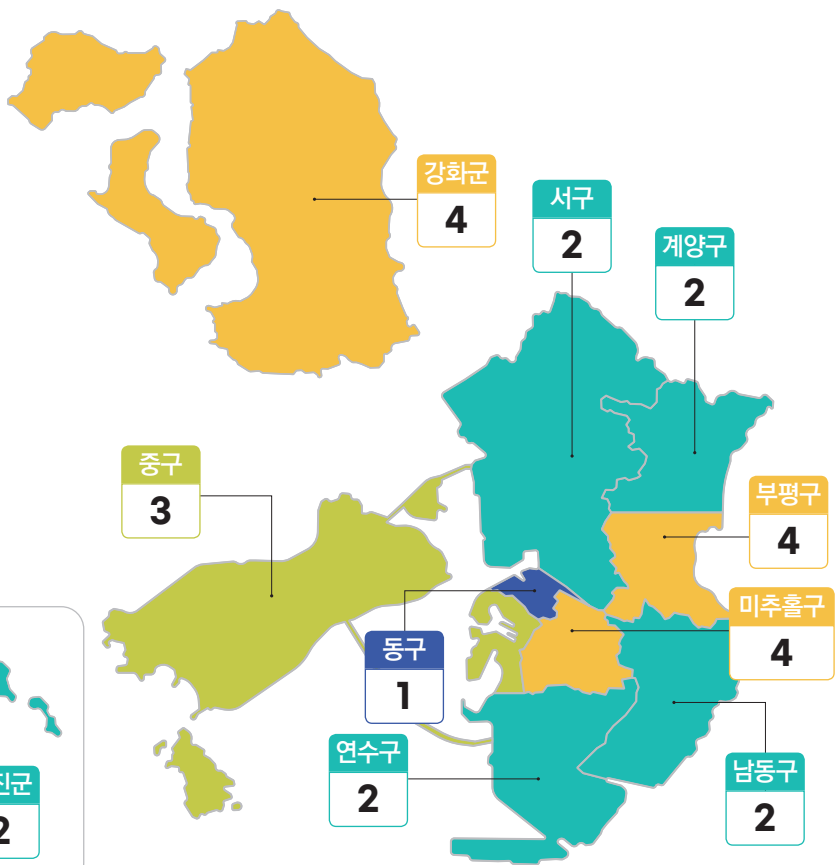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지역안전지수(최근 5년 범죄 분야 추이)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따라 매년 지역안전지수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는 제도로, 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은 더 안전해지고, 안전사고 및 안전사고 사망자는 체계적으로 감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범죄 분야 지역안전지수 (기초자치단체)

범죄
남동구, 서구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



출처: 행정안전부

전문가 칼럼

안전이 매력이 되는 도시, 인천을 꿈꾸며

안전이 매력이 되는 도시, 인천을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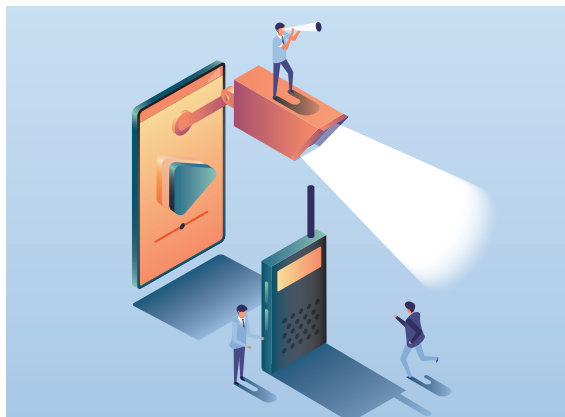


안승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 도시는 복합적인 생태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합니다.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로서, 문화와 예술의 용광로로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현대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다양성만으로 도시의 매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생활의 안정감과 안전에 대한 신뢰감이 새로운 도시의 매력 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본 글에서는 인천시가 진정한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천시는 안전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안전 분야에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통계 지표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표상의 개선 외에도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안전도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천시는 생활안전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지역안전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범죄안전 분야에서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2등급을 받으며, 타 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빈번히 노출되는 이상동기 범죄나 마약 범죄 사건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의 증대에 기인하는 바가 큼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의 증대는 결국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인식인 체감안전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에 있어서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관련 지자체의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원도심의 개발과 관련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테마형 범죄 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과거 높은 범죄율로 악명 높았지만, 1990년대 이후 ‘깨진 유리창 이론’을 기반으로 한 치안 정책을 통해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큰 범죄를 예방하는 방식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도쿄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덕분



입니다. 도쿄도는 방대한 CCTV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시 전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지역 방범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찰과 협력하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뉴욕시의 사례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도쿄도의 사례를 참고해 고도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처한 상황과 다른 도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천시가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각 지역의 특성과 범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치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서는 경찰 순찰을 강화하고, 주거지역에서는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세부적인 대책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 관련 주민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조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서로의 안전을 돌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IoT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AI 기반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감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가로등과 같은 안전 인프라를 활용해 범죄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도입은 도시의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범죄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지역사회 센터,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칼럼

안전이 매력이 되는 도시, 인천을 꿈꾸며



등을 활용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범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이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나 문화적 다양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안전한 환경이야말로 사람들이 도시를 향유하고 싶어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한 도시는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의 근간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안전 인프라, 안전문화의 확산 및 정착, 글로벌 안전도시 브랜딩,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그리고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가 인천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인천시는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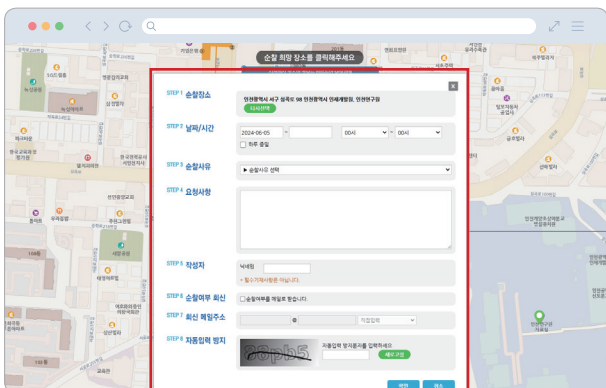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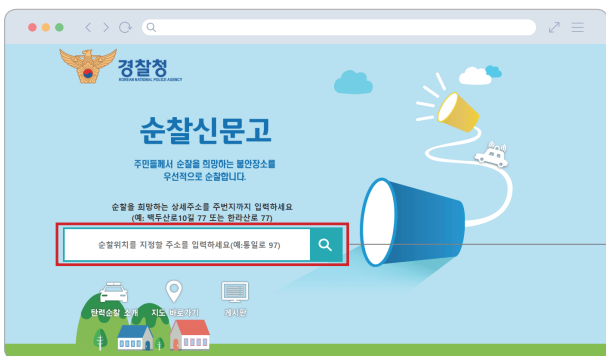
탄력순찰

이전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 시간, 장소를 선정해 왔습니다. 탄력순찰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해 경찰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밀착형 새로운 순찰방식입니다.

온라인 ‘순찰신문고’ 누리집(<http://patrol.police.go.kr>)에 접속 후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시간·장소와 112 신고량을 분석한 후 우선순위·순찰주기를 결정하여 순찰계획에 반영합니다.

순찰 희망 장소 선택 지도에서는 치안안전(치안사고별 발생 현황, 안전녹색길)과 맞춤형안전(어린이 교통안전 정보와 여성 밤길 치안안전, 노인 교통·치안안전 정보) 정보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범죄 발생 전력, 불안을 유발하는 지리적 환경 특성, 불안을 유발하는 인적 특성, 무질서 행위 빈발, 기타 사유 등으로 나뉘는데, 이를 선택 후 주민이 직접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일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 순찰 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탄력순찰 신청 시 개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면 해당 신청 건에 대해 실제 탄력순찰 시행 여부와 순찰 횟수 등을 주민에게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본인의 거주지 주변 지역 관서(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순찰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책소식

생활안전지도

생활안전지도

국민 개개인이 생활 주변 위험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필수적인 안전정보들을 통합하여 지도 위에 표현한 서비스입니다.

현재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6대 분야(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 134종의 지도 서비스와 지역안전등급 및 시설물 안전정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활안전정보 누리집(<http://www.safemap.go.kr>)과 앱(App)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객관적 수치로 보이는 인천광역시의 안전현황은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수한 수준이지만, 시민들의 체감안전도가 낮고 불안도는 높음에 따라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인식 대전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객관적인 안전도는 인구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전국 17개 시·도 최저(21.3건), 인구대비 범죄발생건수 특·광역시 중 4위, 중요범죄 검거율 전국 1위, 교통문화지수 특·광역시 중 1위, 지역안전지수 중 범죄안전지수 특·광역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투자, 관광, 이주를 통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지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치안 지표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광역시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7대 특·광역시 중

범죄안전지수 공동 1위

교통문화지수 1위

가장 안전한 도시,
우리는 인천에 삽니다!



가장 안전

인천은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천경찰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통환경이 안전한 도시

공항과 항만이 있어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인구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도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출처: 인천경찰청, 2023년)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든 도시
특·광역시 중 3위
(출처: 인천경찰청, 2023년)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도시
특·광역시 중 1위
(출처: 교통안전공단,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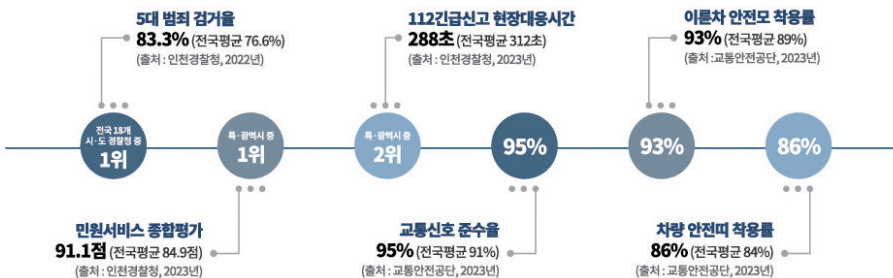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특·광역시 중)

우리의 일상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은 시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범죄 발생률 12만 명 증가
인구 7천만 감소
12년 22년
유일하게 인구 증가 범죄 감소한 도시
(출처: 인천경찰청, 2023년)

'범죄안전지수'가 높은 도시 1위
(출처: 지역안전지수, 2023년)

인구대비 범죄가 적게 발생한 도시 3위
(출처: 통계청, 2022년)



※ 2023년 통계자료는 12월 31일 기준
※ 특·광역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우리 인천

혹시 인천이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터뷰

인천경찰청 박영준 경사

SAFE INCHEON No.03



인천경찰청 박영준 경사님을 만나 인천광역시의 치안 및 안전 관련 정책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박영준
인천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말고 계신 업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경찰청에서 고객만족도 지표를 담당하는 박영준이라고 합니다. 고객만족도는 크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 고객만족도와 민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고객만족도가 있습니다.

외부 고객만족도는 112신고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경찰관을 직접 만나 경찰행정 서비스를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고객만족도와 무작위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안전이 어느 정도라고 느끼는지 조사하는 체감안전도조사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고객만족도라는 지표가 존재한다니 일반 시민분들은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적으로 범죄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마계인천’이라는 단어가 인천광역시의 대표적인 도시이미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이미지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이미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바로 체감안전도라는 지표인데, 인천광역시의 체감안전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담당했을

때는 정말 인천광역시가 안전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인천광역시의 치안 수준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해 보니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지표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마계인천'이라는 단어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국에서 인구 대비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도시가 어디인지'를 묻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인천광역시'를 지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을 기준으로 인구 대비 인천광역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적고, 시민들의 교통법규준수도를 측정하는 '교통문화지수'는 전국 4위로 특·광역시 중 1위입니다. 또한,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 또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적으며 중요범죄 검거율은 전국 1위로 범죄는 적게 발생하지만 검거율은 높은 즉, 범죄예방환경과 범인 검거역량 모두 우수한 도시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안전도를 측정하는 지역안전지수에 '범죄안전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2등급으로 세종을 제외한 특·광역시 중 공동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이미지 변화 및 탈피를 위해 인천경찰청은 인천광역시와 협력하여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안전 도시 이미지 홍보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지표들을 확인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경찰관'이면서 지표의 담당자인 저도 인천광역시가 안전하지 않은 줄 알고 있

었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이렇게 우수한 치안 지표들을 접해 볼 기회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오해를 해소할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의 우수한 치안 지표를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주요 전광판이나 공공기관 내 스크린 등을 통해 홍보 배너를 현출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행사장이나 다중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리플릿을 배부하고 다양한 시민단체나 경찰협력단체 등을 통해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등 시민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우리의 우수한 치안 지표를 접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나 공사·공단과도 홍보영상 제작이나 캠페인 등 해당 기관의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홍보활동 외에 인천경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치안 및 안전 관련 정책 중 타 도시와 비교되는 특징적인 정책 및 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만 꼽자면, 아이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통안전'입니다. 또 체감안전도 지표에도 '교통사고 안전

도'라는 지표가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책 중에서 인천청 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안전·소통 어울림'이라는 정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는 인천시민·경찰관을 대상으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교통 환경을 제안받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처럼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었지만 좀 다른 점은 실제로 살다 보면 한두 번의 커다란 불편보다, 반복되는 사소한 불편이 큰 영향을 미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불편이 계속되다 보면 사소한 것도 사소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여 큰 불만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대규모 개선 사업이 아닌 단순한 신호기 고장이나 노면 보수 등 뿐만 아니라 노면표시 수정, 신호체계 개선, 단속카메라 설치 같은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2까지 공모를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즌 3도 곧 시작할 것 같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천경찰청 누리집을 상시 확인하셨다가 공보가 올라오면 바로 접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인터뷰

인천경찰청 박영준 경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활동들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도 해당 기술 관련 정책이나 혹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혹은 해당 기술을 활용한 활동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대사회에서 AI가 화두가 되는 것처럼 치안 현장에서도 AI를 활용한 다양한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교통 데이터나 112신고 같은 치안 통계들을 시각화하여 치안 수요 예측과 실종 치매노인의 동선예측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청은 인천광역시와 함께 지능교통종합상황실(ITS)을 구축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카메라를 통해 교통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호체계를 구축하거나 실시간으로 교통신호를 제어하여 정체를 해소하기도 하고, 긴급차량 출동 시에는 이동 경로에 따라 교차로를 일시적으로 제어하여 우선 통행권을 부여하는 등 시민편리와 안전에 AI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우리 인천 시민조차 인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거리낌 없이 표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속한 ‘집단’을 더 중요시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곧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발현되고 곧 ‘자부심’으로 연결됩니다. 또 이런 소속감이 특정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애향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개인이 속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곧 그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곳에 속한 우리 인천시민의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 시민 여러분이 많이 공감해 주시고, 적어도 인천광역시에 사는 우리만큼은 우리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말보다는 실제 우수한 치안환경을 바탕으로 ‘마계 인천’이 사실 실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것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인천이 안전한 환경과 함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로 변화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인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당당히 이야기해주세요, “가장 안전한 도시, 우리는 인천에 삽니다!”라고요!



저... 피싱 당했어요

잠깐! 앱을 설치하셨나요?

피해 과정에서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기로 신고·조치하세요.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 휴대폰이 해킹되어 범인이 전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 및 조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및 계좌 정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에 정지 요청하기



즉시 신고하기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길,
112(경찰) 신고하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노출된 개인정보 등록,
금융회사에서 해당 정보로 금융거래 시 강화된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인터넷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검색,
개인정보 노출 등록 및 해제 신청 클릭

휴대폰에 악성 앱 설치 여부 확인·공장초기화

시티즌 코난, V3 등과 같은 악성앱 탐지 앱을
설치하여 휴대폰 검사 및 악성앱 삭제!
공장초기화도 필수! (시티즌 코난=경찰청 자체 제작 앱!)



공인인증서 폐기·재발급

기존 공인인증서가 노출되었다면 폐기 및 재발급!
단,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반드시 컴퓨터나 다른 기기를 이용!!



신분증을 찍어 보내셨나요? 신분증 재발급!

- 주민등록증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분실신고
- 운전면허증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분실신고 진행

** 온라인을 통한 신분증 재발급은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이 필요!*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통신사 상담전화 및 앱을 통하여 소액결제 차단

휴대폰 추가 개통여부 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엠세이퍼** 활용,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신규가입
사전차단) 신청하기 **PC로만 가능!*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대출여부 확인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금융결제원) 활용,
계좌통합조회·대출정보 조회·카드정보 조회하기!



피싱 피해 대처요령,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대출사기 대처요령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일단 의심하세요!!

금리 대란 대출
사기범 안전정보를

10000

제1편.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내 정보를 알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OO캐피탈 상담원의 전화나 문자를 받으셨나요?

(OO은행)
"2%대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
최대 9,500만원까지!"
문의: 00-0000-0000

일단 의심하세요!!

사기범들은 내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대출진행을 위해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였나요?

어플을 설치하세요. 112입니다.

가짜 상담원
가짜 경찰

일단 의심하세요!!

설치한 어플로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깔려
112에 신고하여도 범인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 기존 대출 일부 상환 또는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등을 요구하였나요?

고객님, 기존 대출을 상환하시면
대출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의심하세요!!

대출을 이유로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기 위한 TIP

일단 의심하세요!!

- 1 모르는 전화, 문자로 오는 대출권유는 사기와심
- 2 어플을 설치 요구 때는 사기 의심
- 3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수수료, 보증비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
- 4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신속히 신고 및 지급정지(경찰청 112)
※ 30분 내 신고시 피해금 회복 가능

국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3주 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계속 달리겠습니다.